

6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이틀째 하락..다우 1.25%↓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약세로 마감했음. 그동안 많이 오르게 따른 가격 부담이 작용과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증권사들의 코멘트가 투자심리를 압박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07.46포인트(1.25%) 하락한 8,504.6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20포인트(1.11%) 떨어진 1,796.1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1.75포인트(1.27%) 하락한 911.97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했음. 지난 5월 주택착공 건수가 기대 이상으로 큰 폭 증가한 점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자극했고 전날 급락에 따른 일부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었음. 그러나 전날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들이 최근 3개월간 40% 안팎 급등한데 따른 가격부담이 투자심리를 억눌렀음. 특히 모간스탠리가 이번 랠리가 끝난듯 싶다고 언급한데다, 골드만삭스가 향후 수주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음.
5월 주택착공 `서프라이즈`..17% 급증	미 상무부는 5월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연율로 53만 2,000채를 기록해 전월 45만 4,000채에 비해 17.2%나 급증했다고 밝혔음. 주택 착공건수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주택건설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착공허가 건수도 연율 51만 8,000채를 기록, 전월 49만 8,000채에 비해 4% 증가했음. 신규주택 착공건수와 착공허가건수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5월 착공건수는 48만 5,000채가, 착공허가건수는 50만 9,000채가 예상되었음.
5월 PPI 0.2%↑..예상치 하회	미 노동부는 5월 PPI(계절조정)가 식료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음. 상승폭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고 당초 마켓워치와 블룸버그와통신은 0.5~0.7%를 예상했었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0.1% 하락했음. 시장에선 당초 0.1% 가량 증가세를 예상했음. PPI는 5월중 전월비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5% 감소했음.
美 5월 산업생산 1.1%↓..예상치엔 거의 부합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미국의 5월 산업생산이 1.1% 하락했다고 밝혔음. 이로써 산업생산은 17개월중 16개월간 위축세가 이어졌음. 5월 산업생산 감소폭은 전월 0.7%(수정치)에 비해 컸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거의 부합했고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1% 감소하였음.

제목	주요 내용
유럽증시 반등에 성공 ..BT 급등	유럽증시가 16일(현지시간) 급락세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 은행주가 부진했지만 통신주와 식료품 등 경기방어주가 강세를 보였음. 주식시장이 경기모멘텀 약화로 최근 조정 양상을 보임에 따라 통신주와 식료품업체 등 소위 `경기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음. 영국의 통신주인 BT가 8% 급등했고 보다폰은 1.6% 상승. BT의 경우엔 모간스탠리가 잉여현금흐름 개선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조정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음.
GM, 코닉세그에 사브 매각 결정	제너럴모터스(GM)가 스웨덴 스포츠카 제조업체 코닉세그에 사브 브랜드를 매각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 GM 유럽법인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코닉세그에 사브를 매각하는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코닉세그는 사브의 경영권을 완전 장악하게 된다. 다만 GM과의 협력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한은, 중기 물가목표 3±1%로 변경 추진	현행 목표치 3±0.5%에서 물가목표 중심치인 3%를 유지하되 변동폭은 배로 늘리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첫 시행한 2004~2006년의 목표치로 다시 돌아가게 됨. 한은이 이처럼 목표치 변동폭 확대를 추진중인 직접적인 배경은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물가관리의 융통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됨.
4월 가계대출 증가 비은행권서 주도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4월말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19조7,91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4,542억원(0.5%)이 증가. 이는 지난 3월 한달간 증가분 1조8,342억원(0.4%)보다 늘어난 것임.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늘었음. 이는 신용협동기구(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 전월대비 1조1,466억원(0.9%)의 큰폭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전월 1,145억원(-0.1%)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것임.
신세계, 온라인 사업도 가파른 성장세	16일 신세계(004170)에 따르면, IT계열사인 신세계I&C(EC사업부)의 신세계몰은 올해 4,000억원대의 매출(거래액) 달성을 예상하고 있음. 이는 지난해(2,700억원)와 비교해선 48% 가량 늘어난 수치. 지난 2005년 800억원에 불과했던 신세계몰 매출은 매년 6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상승장구하고 있음. 올 1분기까지도 40% 가까운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